



못난이 자궁이 하고 싶은 말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산부인과는 무섭고 수치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된다. 심지어 가지 말아야 할 곳이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문란한 여성쯤의 억울한 오해마저 감수해야 하는 곳이다. 아무리 아프고 몸에 이상이 느껴져도 언제나 '산부인과'가 최후의 선택이 되는 이유다. 감기는 조금만 심해도 병원을 찾으면서도 여성의 자궁은 덧씌워진 편견과 오해 때문에 조기발견과 치료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만다.

글 | 김은섭 기자 · 자료제공 | 『명의』(도서출판 '달')



❁ 산부인과와 친해지세요

전 세계 여성에게서 두 번째로 발생하는 암, 1년 동안 40만 명이 발생하고 1분에 2명꼴로 사망하며, 우리나라 여성암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악명 높은 암이 바로 자궁경부암이다. 엄마와 딸 사이, 심지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자궁'이며 '질' 이고 '생리' 였던 동안,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성스러운 자궁은 외롭게, 외롭게 버티다 급기야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암 덩어리로 돌변한다. 자궁에 생기는 암은 부위별로 부르는 이름도, 치료법도 다르다. 자궁 내부의 점막에 생기는 '자궁내막염'의 경우 주로 출산 경험 없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에게 잘 발생하는데, 자궁내막은 조식을 떼어내기 어려운 탓에 세포 검사가 어렵고, 그로 인해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질과 연결된 자궁의 입구에 생기는 암이 우리가 흔히 자궁암으로 알고 있는 '자궁경부암'이다. 한번 암으로 진행되면 재발의 위험이 높고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치명적인 암이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난소암의 경우는 조기발견이 어려워 말기로 진행될 경우 5년 생존율이 20%로 떨어진다고 한다.

“제일 안타까운 건 후회하는 환자들을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로 되돌려 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제발 산부인과와 친해지세요. 자궁암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세포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만 1분이면 끝납니다.”



● 환자 앞에서만 빛나는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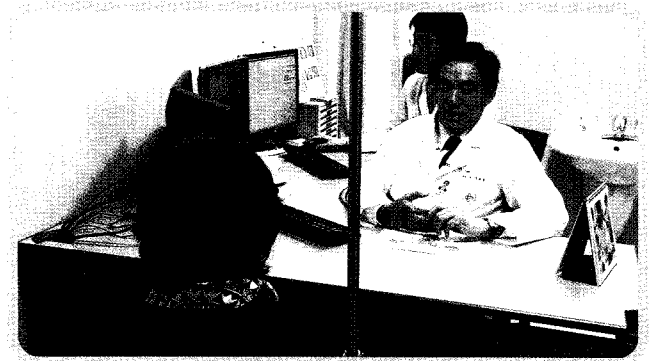
평생 수술실과 진료실에서 과할 만큼 일을 했고, 의사로서의 성취와 명성도 남부럽지 않았던, 이제는 가족과 시간도 보내며 쉴 때가 됐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부인과 환자 곁을 지키는 현역 의사가 있다. 바로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효표 교수다. 평생을 부인 암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는 유달리 말수가 적은 편이다. 의사로서 지난 삶에 대해 구구절절 물어볼 만도 한데 그에게는 말끔하게 정돈된 '의사', 그 이상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환자 앞에서는 그토록 침착하기만 하던 그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

“우리 며느리가 그래. 선생님이 오진한 거라고. 항암주사 맞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저 세상 갔을 텐데 어머니는 10년이 지나도 건강하시다구. 구급차 타고 한밤중에 3번이나 실려 왔는데도 살아나고 또 살아났어. 다 교수님 덕분이야. 아마 교수님 이랑 나하고 궁합이 맞나봐.”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치료 방향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말로는 다 표현 못해도 웬지 모르게 속 깊은 정이 느껴지는 얼굴. 그는 외유내강형의 사람이었다. 의사를 신뢰하는 환자를 위해 부드럽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강한 책임과 애정을 갖고 암과의 싸움에 함께 동행하는, 그 힘이 할머니를 세 번의 위기에서 살려낸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여성에서 5명 중 1명꼴로 갖고 있다는 자궁근종. 수술실에서 볼 수 있는 자궁의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다. 중년 여성 환자의 자궁, 미끈한 호리병 모양으로 주먹만한 크기로 있어 야할 자궁이, 서너 개의 혹이 다닥다닥 붙어서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거나 울퉁불퉁 흉한 그 모양새에 ‘못난이 자궁’이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 가장 흔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대로 두면 배란 장애와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1% 정도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자궁근종. 무엇보다 생명을 키우는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근본’이라 여기면서도 자궁에 대해 철저히 무지하고 완벽하게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 못난이 자궁이 흉하고도 서글픈 모습으로, 제발 내 몸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라고 경고를 보내는 듯하다.

자궁암이나 난소암 외에 가장 흔한 종양이 자궁근종이다. 크기가 작은 자궁근종일 경우 시술되는 복강경 수술을 국내에 도입해 자궁 질환 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효표 교수는 나이 예순이 되던 해에 휴가를 내고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다녀왔다.⑥



“책을 봐도 이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인데다 젊은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강행군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걸 배우고 공부하는 게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요.”



우리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의학과 질병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로 환자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의사들의 인간적인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명의』(도서출판 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